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통 건축자산 발굴 '한류' 주도

전북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민간 전문가 참여 자문단 구성, 현장 위주 발굴 정책 마련

전북도가 근대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도내 건축자산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9월 완료 예정인 이번 용역은 전북도 전역에 대한 건축자산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
도는 이를 토대로 한옥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 5개년 계획에는 ▲건축자산 목록 구축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시행계획 로드맵 수립, ▲우수 건축자산의 지정 및 관리, ▲전북도 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한옥의 가치등급 설정 ▲전북도의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분석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도별 중

합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기게 된다.
그간 전북도가 발굴·보전해온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은 물론, 근·현대 건축물과 공원·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 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도 보존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Active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건축자산 정책 수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과업 초기 단계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위주의 자산발굴과 실천과제 수립의 적정성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건축자산 정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항공 우주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건축자산(built-asset) 국가인 만큼, 파리나 비엔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수백여 년간 문화와 역사가 뿌리내린 건축자산과 같이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잘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축 한류를 펼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유호상 기자

'힘차게 우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북도는 21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안원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2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석, 사회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경찰청, 육군 제35보병사단 등 도내 6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방재단이 참석해 매뉴얼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과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 부여, 훈련 진행상황 점검으로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호상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자치경찰 유공 경찰공무원에 '첫 표창'

도, 경찰의 날 맞아

전북청 자치경찰부 소속
생활안전과·교통과 등서
각 1명씩 총 18명 선정

전북도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사진 3면>
이날 시상식은 전북도가 경찰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표창을 수여한 뜻깊은 자리였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북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앞서고 있다.
이번 시상식의 주인공은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 소속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서 각 1명,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각 1명씩 총 18명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경찰청 교통과 경감 이광열,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최은희,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서상훈 등 대표 수상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전북경찰청 이광열 경감은 "자치경찰로서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보다 세심하게 지키기

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출범 이후, 이동 안전 강화대책을 1호 시책으로 선정,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실무협회의·간담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신규과제 발굴을 통한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내 학교 급식예산 확대 '한 뜻 모아'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서
3건 합의·2건 지속 협의기로

전북교육청은 21일 본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전북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급식예산 확대 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열린 '2021년 3차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는 류정섭 부교육감과 조봉업 행정부지사 등 양 기관 국·과장이 참석, 총 5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은 "도청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합의되고 또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전북도청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높은 우리 지역에서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 간 교육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 교육협력관 파견,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안) 등 4건을, 도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대상 확대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출된 안건들의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양 기관 실무부서 간 협의와 10월 1일 실무관계자회의, 21일 본회의를 거쳐 3건은 합의, 2건은 장기검토 및 지속 협의기로 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첫 번째로 합의된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21일 열린 '3차 전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류정섭 부교육감과 조봉업 행정부지사 등 양 기관 국·과장이 참석, 총 5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원에 내년도 교육청과 도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양 기관별로 100원씩을 증액하고 이 인상분의 50%를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구매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 위험이 있는 된장과 고추장 등의 양념류가 도내산 제품으로 확대 사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합의된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 공급 확대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유기농 쌀을 2021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추가예산 208,200만원을 교육청과 도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세 번째 합의안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도청에서 징수하는 교육세 전액과 지방세의 3.6%를 교육청에 전출하게 돼 있다. 또한 위 법률은 관련 전출금의 사용처를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한다. 이에 따라 전출금 2,151억 원을 공립학교 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안건은 유치원과 특수

학교의 급식비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청과 도청이 5대 5로 분담하지는 안건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 도청은 교육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타 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비를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도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많이 증가해 열악한 재정 상황상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청에서 도청으로의 교육협력관 파견 안건은 양 기관 간 교육협력의 강화를 위한 협력관 파견 필요성에 도청에서도 동의하지만, 인사교류 등의 파견방식과 또 조직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전주페이퍼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